LoG in 연세총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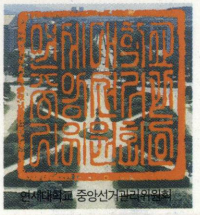
File(F) Edit(E) View(V) Go(G) Favorite(A) Help(H)

Back Next Stop Reload Home Search Favorite

연결

주소 http://

로그인 연세총여



작게만 화려한 행렬에 접속되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중...

제12대 총여학생회 정후보

강김정임 / 똑지

(인문 3)

79년 1월 울산출생

97년 울산여고 졸업

연세대 인문학부 입학

인문 10반 정치경제학회 활동

98년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활동

99년 미스코리아 반대

프로젝트 모임 'Kill' 활동

문과대 '反성폭력 학교' 기획

99 여성연대한판 기획단

제2회 여성제 '여우야, 여우야어디있니' 기획단장

제12대 총여학생회 정후보 출마

"똑 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똑 부러지는 척하는 지지배

78년 대구 출생

97년 대구 경일여고 졸업

연세대신문방송학과 입학

사회대신방과학회 comm.知樂 활동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활동

98년 3.8 세계 여성의 날 연세 기획단 단장

beyond 기획 포럼 '포르노, 내게 거짓말을 해 봐' 기획

신방과학회 comm.知樂 학회장

제 12대 총여학생회 부후보 출마

"이 안?"

이안은 '이건 아니다'의 준말이다.

세상에 아닌 일은 너무나 많고

아닌 일에 부딪혔을때,

'이건 아니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담긴 이름!

김임은정 / 이안

(신문방송 3)

제12대 총여학생회 부후보

로그인 연세총여 작지만 확실한

1 나의 하고 싶음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불필요하게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일없이
내가 꿈꾸어 왔던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즐기는 것,
많은 경험을 통해 나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날개를 얻는 일.
왜 이토록 작은 꿈이 불가능한거지?

가끔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고 싶다?
단편영화를 찍고 싶은데, 돈이 없다?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
제대로 된 여성학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졸업 후의 취직이 걱정이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그인 연세총여!!!

2 연세 안의 여성들이 다르지도 같지도 않은 이유

과방에서 한 아이에게 말했다.
"나, 힘들어."
벽을 보고 있다. 벽에 대고 말하고 있다.
그 단절감...

응답이 있었다.
이번에 남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여휴의 날적이에...
취업 걱정하는 선배 언니의 한숨에...
쉴 곳 없어 학교 안을 헤메는 나의 투덜거림에...
그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공간에서는 닿아 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연세 여학우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연대 안의 다르고도 같은 여학우들을
만나겠습니다.

행복에 접속되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중...

3 연대 안에 명소를 찾아라!

공대 앞 남근 바위
처녀와 비처녀를 구별한다는 독수리 상
중도 앞 여학생 품평회 자리
대강당 앞 '농구공에 머리 맞을라' 공터
가숙사 가는 길-담력 훈련 코스
밤늦게까지 남아 있을 경우 성폭력을
걱정해야하는 * * 방

여성도 다닐 수 있는 학교 맞나요?
불편하고 불리한 공간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형성되는 말말말…

여성도 다니고 싶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6000명에 육박하는 여학우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공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4 총여? 몰라!

총여가 뭐하는 데야? 어디에 있어?
아니, 총학이 있는데, 왜 총여가 필요해?

당신과 상관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마치 1:1의 연결이 가능한 인터넷에서처럼
자유로운 소통과 논쟁 속에
당신과 총여의 자원과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접근 가능한 총여!
당신의 삶에 주파수를 맞추고 싶습니다.

LoG in 연세춘애

File(F) Edit(E) View(V) Go(G) Favorite(B) Help(H)

Back Next Stop Reload Home Search Favorite

주소 ht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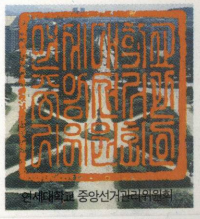
연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속의 작은 것,
그렇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들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중...

당신의 접속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접속되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중...

빈자리를 채워 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선본 통신 ID-로그인 ID(나우누리)
선본 연락처-한천지영(이다) : 015-8412-1976
이이정선(따거) : 016-722-3590